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3
----------	------

발의연월일 : 2024. 9. 20.

발 의 자 : 곽규택 · 이성권 · 조배숙  
유상범 · 장동혁 · 주진우  
송석준 · 박준태 · 정성국  
김대식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경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략)	제3조(처벌의 특례) ① (헌행과 같음)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② ----- <u>아니하거나</u> ----- ----- ---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 략)	<u>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다시 술 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경 우-----.</u> 1. ~ 12. (현행과 같음)
---	--